

# 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 네트워크 ‘두레넷’ 내년 본격 가동

앞으로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한 업체는 정부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에 올라 불이익을 받는 반면 우수업체는 금리를 우대받는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 네트워크 명칭을 ‘두레넷’으로 선정하고 연말까지 각 부처별 제도 개선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해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 질서 정착을 위한 범정부 정책 공조체제로서 ‘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재 건교부, 재경부, 산자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하도급정책협력 네트워크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명단을 관련 부처

에 통보하면 각 부처는 이를 소관 정책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거나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도급정책협력 네트워크의 부처별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 ◆ 10개 부처별 정책과제

부 처	정책 과제
공정위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와 상습법위반업체 명단을 관계부처에 통보
재경부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국책금융기관의 보증지원시 상습법위반기업은 신용등급 1단계 하향조정(보증수수료 약 0.2% 증가), 하도급거래 모범기업은 ‘우대보증대상기업’으로 지정(보증한도 30억원까지 확대)
과기부	○ 국가 R&D 자금 지원시 하도급 공정거래 여부 반영 ○ ‘TR52 장영실상’ 등 수상자 선정시 하도급 공정거래 여부 반영

부 처	정책 과제
산자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지수 산정시 상습범위반업체 등 반영 ○대중소협력자금(산업기반자금 내) 운용시 상습범위반업체 불이익 부과
건교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기준에 우수업체 반영 - '협력업자 육성' 평가항목에 중앙행정기관의 하도급 모범업체 추천의 경우 장관급 표창과 동일한 배점(3점) 부여
정통부	○기간통신사업자 선정 심사기준에 하도급 공정거래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사항 반영
조달청	○시설공사·물품구매 등 정부조달 입찰시 하도급 공정 거래 실적에 따라 실효성 있는 혜택 또는 불이익 부과 - 신인도 분야의 하도급관련 항목을 세분화하여 가·감점 부여
중기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심사시 상습 범위반 업체는 2점 감점 ○상습범위반 업체에 대하여는 중기청장이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
국세청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와 상습범위반 업체를 세무관련 정책에 참고
금감원	○민간은행의 기업신용평가지 하도급거래 불공정 여부를 반영하도록 유도



### 루비콘 강가의 선택 - 주사위는 던져졌다

어떤 일이 이미 시작되어 더 이상 다른 선택이 없을 때 우리는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말한다. 이 말은 로마 제국의 장군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며 외쳤던 말로 유명하다.

“주사위는 던져졌다.”를 라틴어로 하면 “lacta alea est(악타 알레아 에스트).”이다. 여기서 ‘lacta’는 ‘던지다’, ‘alea’는 ‘주사위’, ‘est’는 영어의 be동사로 보면 된다. 영어로는 “The die is cast.”로 번역된다.

카이사르가 갈리아 사령관으로 나가 있을 때, 로마의 폼페이우스는 원로원 의원들과 손잡고 카이사르를 타도할 생각으로 “모든 군대를 해산하고 로마로 돌아오라.”고 카이사르에게 명령한다. 이에 카이사르는 그들의 음모를 눈치 채고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진격하는 도중 루비콘 강에 이른다.

루비콘 강은 갈리아와 로마의 경계에 있는 강으로, 만약

무기를 지닌 채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되면 로마에 반역한다는 의미가 된다.

루비콘 강 앞에서 카이사르는 착잡한 심경으로 말한다.

“이 강을 건너면 세상이 비참해지고, 건너지 않으면 내가 파멸한다.”

그러다가 망설임을 떨쳐 버린 그가 큰 소리로 외친다.

“자, 나아가자! 신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우리의 명예를 더럽힌 적이 기다리는 곳으로.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이때가 기원전 49년 1월 12일, 카이사르의 나이 50세 6개월 되던 날 아침이었다. 결국 루비콘 강을 건너 카이사르는 승리해 로마를 자기 손아귀에 넣는다. 그 후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명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이 되었다.

「상식지존 뇌를 깨워라」 중에서